



대전 화재 14명 참변, 불법 증축이 화 키웠다

도면에 없는 복층 헬스장서 9명 등
차 부품 공장 실종자들 숨진채 발견
60명 중경상... 소방관 2명도 다쳐
李, 현장 찾아 “정부 先지원 검토”



화염에 엇가락처럼 휘고 주저앉은 건물 22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안전공업 공장 건물이 20일 발생한 대형 화재로 3층 구조가 증잇장처럼 구부러진 채 내러앉아 있다. 이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소방대원을 포함한 60명이 다쳤다. 화재는 근로자들이 쉬던 점심 시간에 발생했다. 이 때문에 다수가 대피하지 못한 채 참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20일 대전 대덕구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안전공업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연락이 두절됐던 직원 14명이 모두 공장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화재로 14명이 숨졌고, 소방대원 2명을 포함한 60명이 다쳤다. 소방 당국은 공장 축이 2층과 3층 사이 '2.5층'을 불법 증축해 대피로가 없었고, 공장 내부의 가연성 물질과 샌드위치 패널 구조 등이 참사를 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사망자 14명 가운데 9명은 직원 휴게공간으로 쓰이던 2.5층 헬스장(탈의실)에서 한꺼번에 발견됐다. 다른 1명도 헬스장으로 이어지는 계단에서 발견됐다. 화재 당일 오후 11시 48분경 완전 진화를 선언한 소방 당국은 철야 수색 작업을 벌였고, 21일 오후 5시경 2층 물탱크실 인근에서 마지막 실종자 3명을 발견했다. 다만 수습된 14명의 시신이 크게 훼손돼 이날까지 신원 확인이 된 피해자는 2명에 그쳤다.

사망자가 집중된 헬스장은 도면에 없는 복층 공간으로 확인됐다. 공장 설비 반입 등을 위해 경사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층고가 약 5.5m로 높아졌고, 업체 측은 이 공간을 임의로 막아 한 층을 더 만든 뒤 직원 헬스장과 휴게 공간으로 사용했다. 소방 관계자는 “불법으로 만든 층은 창문도 작고 외부로 나가는 통로도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부품 제조 공정 특성상 공장 안에 기름때

와 유증기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았고, 공장 외벽에 사용된 샌드위치 패널이 불이 삽시간에 커진 원인으로 꼽힌다. 이 공장을 방문했던 직업환경의학과의 전문의는 “난간, 책상에 오일미스트(미세 기름입자)가 곳곳에 맺혀 있어 감전하기 전에 항상 닦아야 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불이 난 20일 오후 1시 17분경 대전시 관제센터 폐쇄회로(CCTV)에는 공장 1층에서 하얀 불꽃이 치솟은 지 채 1분도 되지 않아 공장 전체가

연기로 뒤덮이는 모습이 담겼다. 불길은 완전히 잡힌 지 48시간 넘게 지났지만 소방 당국은 아직 정확한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화재로 건물 일부가 크게 내려앉았고 내부 설비와 철골 구조물이 뒤엎겨 추가 붕괴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사고 다음 날인 21일 현장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유가족 요청을 반영해 현장 책임자를 지정하고

진행 상황을 정례적으로 설명하라”며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정부가 비용을 선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피해 수습을 위해 대전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했고 대전시는 22일부터 시청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대전=김태영 live@donga.com·이정훈·천종현 기자 ▶A2·3면에 관련기사

트럼프 ‘48시간 통첩’ “호르무즈 개방 안하면 이란 발전소들 초토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설을 통해 “이란이 지금부터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가장 큰 발전소를 시작으로 이란의 각종 발전소를 공격해 초토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의 위협으로 중동산 원유의 핵심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 국제유가 급등 현상 등이 지속되자 최후통첩을 날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간 부문에도 충격을 줄 수 있는 발전소 공격을 언급한 건 이란의 국가 운영을 마비시키는 수준으로 공격을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 해석이 나온다.

이란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2일 이란 타스 남통신에 따르면 이란군은 “적대국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심각한 결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군은 미국이 이란의 연료 및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할 경우 역내 모든 미국의 에너지, 정보기술(IT), 담수화 시설을 공격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란은 20일 자국에서 4000km 떨어진 인도양 차고소 제도의 디에고카르시아 영국-미국 공동 군사기지도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과 이란이 상대를 향한 공격 범위 확대 방안을 거론하면서, 전쟁 격화 및 장기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조만간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기여 요청과 관련한 소통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정상화를 위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기여를 강조하는 가운데 미국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신규진 기자 ▶A4·18면에 관련기사

광화문 물들인 K컬처의 빛, 세계가 함께했다

BTS ‘서울의 심장’서 컴백 무대
과거-미래 공존 광화문 매력 밝혀
NYT “관객들 놀라도록 질서정연”

“어두운 밤 하늘 아래 서울의 ‘상징적 심장(Symbolic heart)’ 광화문이 환하게 빛났다.”(영국 일간 가디언)

21일 밤 서울 광화문에서 쏘아올린 ‘K컬처의 새로운 도약’을 전 세계가 함께 지켜봤다.

이날 오후 8시 광화문광장에서 방탄소년단(BTS)의 복귀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이 예정대

로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세계에서 한국을 찾는 BTS 팬덤 ‘아미(ARMY)’와 시민 등 10만여 명(주최측 추산·행정안전부 추산 6만여 명)이 광장 일대에 몰려든 가운데, 넷플릭스 생중계를 통해 190여 개국에서 광화문 무대를 실시간으로 시청했다.

20일 발표한 새 앨범 ‘아리랑’ 수록곡들과 미 빌보드 싱글차트 1위 곡인 ‘버터’ ‘다이너마이트’ 등을 선보인 BTS 공연은 경복궁과 초고층 빌딩 등이 어우러지며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광화문의 매력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국 BBC는 “공연은 14세기 조선 왕궁에서 도심 광화문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됐다”고 전했으며, 미국 CNN은 “광화문을 무대로 한 BTS의 귀환은

최근 한국 청년세대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도 맞물린다”고도 해석했다.

이날 광화문엔 수많은 인파가 몰렸으나, 별다른 사고 없이 차분하게 마무리됐다. 현장엔 경찰과 서울시, 하이브 관계자 등 1만5000명의 관리 인력이 투입됐으며, 경찰기동대 72개 부대 등은 오전부터 광장 일대에서 테러 및 범죄 예방에 힘썼다. 공연 뒤 관객들은 안내에 따라 차례로 귀가했으며, 일부 아미와 자원봉사자들은 자발적으로 쓰레기 수거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광화문 현장을 실시간으로 전한 미 뉴욕타임스(NYT)는 “광화문광장은 놀라도록 질서정연했다”고 보도했다.

사지원 4g1@donga.com·권규용 기자 ▶A5·12·20·B4면에 관련기사

李, 한은 총재 후보자에 신현송 BIS 국장 지명

(국제결제은행)

중동 등 불확실성 속 금리정책 주목
靑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업무서 배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신현송(67·사진)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중동 사태로 인해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국민경제 성장이라는 통화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적임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구 출신인 신 후보자는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 금융자문위원, 국제통화기금(IMF) 상주학



자 등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엔 대통령국제경제보좌관을 지냈으며, 부동산 등 자산시장 거품에 대해 경고해 왔다.

한은 총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4년이다. 현 이창용 총재의 임기는 다음 달 20일 만료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부동산 주택 정책 담당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donga.com ▶A6·10면에 관련기사

명인제약이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명인다문화장학재단

2026년도 1학기 대학 장학생 모집

지원 자격

-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의 자녀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문화 가정의 자녀

선발 일정

- 모집기간 / 2026년 4월 10일까지(우편접수)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67, 명인타워 9층 (우 06653)
- 선정결과발표 / 2026년 5월 15일 (명인다문화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

선발 내용

- 선발인원 / 00명
- 장학금액 / 400만원 (1인 기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명인다문화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s://myungfoundation.or.kr> 참고

명인다문화장학재단

우리말 겨루기

우승 상금 500만원

우승 상금 1,000만원

명인제약(주)

2025 브랜드 고객 충성도 1위
잇몸치료제 부문

주최·주관: 한국소비자포럼

20일분 60캡슐

2개월분 180캡슐

잇몸병엔 이가탄

잇몸병 2천만 시대, 많은 분들이 잇몸 아프면 이가탄을 찾아주셨습니다.

※ 치은염 및 치주질환 19,588,686명 / 202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다빈도질환 통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일부만 사용상의 주의사항 잘 읽고, (비대형)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광고문의: 2026-1795-003600 | 인타넷 허위사실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 효능·효과: 치주치료 후 치은염 및 경·중등도 치주염의 보조치료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병엔 역시, 이가탄에프!